

진작에 이랬더라면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개역, 예레미야 42:1~6]

어떤 남루한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신경도 별로 안 썼는데 며칠 뒤에 알고보니 그 분이 임금님이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실수입니다. 옛날 같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큰 실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무서운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 1절부터 봅시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내던 어느 연예인이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싸인 공세가 쏟아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온 백성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을까요?

저도 가끔은 되도 안 하는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드는 꿈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꿈이라도 꺾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런 날이 닥친 겁니다. 전도하려고 애를 애를 써도 한 명도 안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를 따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즐거운 날일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걸 더더욱 놀랄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수시로 옥에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눈물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온통 고난과 수난만 당하던 예레미야에게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느냐 싶는데 앞뒤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버렸습니다. 비는 쏟아져 내립니다.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뒤늦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렸고 쓸 만한 인재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신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없어서 심판을 행합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반성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 과정에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느냐? 내 계명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습니까?

4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그 후에 왕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해 버렸습니다. 징계 당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외쳤습니다. 앗수르도 믿지 말고 애굽도 믿지 말고 바벨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애굽을 믿고 어떻게든 버티어 보려고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많이 봐 줍니다.

첫 번째 침공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한 7년쯤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을 배척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와서 점령합니다. 다른 왕을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10년쯤 지난 후에 또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다가 세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총독을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세 번의 침공 덕분에 이스라엘은 거의 황폐화 되고 흔히 하는 말로 눈 똑바로 박힌 인간들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수난을 당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그나마 잘 다스릴 듯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풀이 좀 되려나 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마엘을 제압하고 그가 데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되찾아 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세워 놓았던 총독을 암살해 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애굽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레미야를 찾아왔으니 정말 천만 다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들이 이런 고생을 안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 하는 이런 때에 선지자를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다 버리고 쓸 만한 인재들은 다 잡혀가고 남은 이 무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러면서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굉장히 복된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때를 잘 잡은 분들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충성의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능력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지난 주일 좀 늦게 마치지 않았습니까? 늦은 시각에 솔로몬 찬양단이 오래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듣기도 참 좋아서 제가 한참 동안 들으면서 바람을 좀 넣었습니다. 노래 잘 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중창을 하고 합창을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래 잘 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좋은 노래를 부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남자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연습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세요” 하고 옆에서 거들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구요. 노래 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힘없어 못 부를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파노가 열심히 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이 조금 더 들고 힘 떨어지면 못 뛸니다.

돈 있을 때에 귀한 곳에 잘 써야 합니다. 나중에 쓸 돈이 없을 때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기 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아노 잘 못 치는데요?’ 못 친다고 내뺄면 평생 못 칩니다. 잘 못 치지만 하세요! 그러다가 나보다 잘 하는 사람이 오면 물려줘야지요. 그런데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충성하다가 내가 잘 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저는 일꾼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2 때부터 고향 교회에서 반주를 시작했는데 잘 해서 했겠습니까?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한 겁니다. 전주만 안 틀리게 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주만 안 틀리게 치면 그 다음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파묻혀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객지로 떠날 때까지 혼자서 교회 반주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같이 엉터리로 배워서 저같이 잘 써 먹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할 만한 곳을 찾아가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해라 해라해서 붙들려 가서 하는 것도 잘 하는 겁니다마는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충성하시는 것이 더 잘 하는 겁니다. 복된 길입니다. 저는 비교적 제가 일할 곳을 찾아가면서 교회 일을 했던 편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게 준 제일 큰 선물이 우리 집사람이 아난가 생각합니다. 날더러 가끔 ‘사모님 귀한 줄 아세요!’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뭔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집사람을 얻기까지 내가 한 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제가 대구에 공부하러 가서 찾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위낙 작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구요. 그러던 중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다녔는데 두 달 만에 찾았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로 계시더라구요. 만나려고 갔다가 본 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소복히 있는데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더라구요. 그게 몹시 뒤가 땡겼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로 옮겨왔던 겁니다. 거기 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맡아가지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덕분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 집사람입니다.

일할만한 곳에, 섬길만한 곳에 찾아가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나간 20대, 30대 같으면 펄펄 날겠는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깨달은 이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놓치면 가장 충성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4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며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웬만한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너희라도 여기 여전히 거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땅이고 사람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가지고 있던 것 다 날려 버렸고 지금 드릴 게 아무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잘 안 듣네요.’ 어느 정도 연세든 분이 한 말 같습니다? 작년에 주민등록증 나온 애가 그렇습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정년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물 떠 날라야 하더라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택도 없는 애깁니다. 70대라도 어리더랍니다.

어떤 교회 성가대에 머리 하얀 노인이 앉아 계시면 찬송을 안 불러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노인네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다가 조금 나이 들면 뒤로 나 앉아서 에헴 하는 것보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서라도 아이들 앉혀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이 구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아니 좋든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아니 좋든 우리 기분에 맞든 아니 맞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말뿐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때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41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41장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가 총독입니다.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들이 갈대아 총독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갈대아인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을 하고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아니 좋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 거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고 너희가 평안히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하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이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43장 2절을 보십시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아니 좋든 청종하겠다고 말해 놓고 자기들의 뜻과는 다른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

명히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 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을 둘러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단 번지르르한 거짓말을 했다가보다는 그릇된 확신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사 하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대통령이나 임금을 감금을 해놓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갈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뜻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뒤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꼭 깨어져 나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비유컨대 한국 사람치고 통일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가정마다 몇 백만 원씩 내놓아야 합니다. 통일 비용이 그만큼 듭니다. 통일 비용을 낼 마음이 없는 사람이 '통일합시다' 그러면 말뿐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 열 생각이 없으면서 날마다 세계 선교 이야기하고 북한 선교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직접 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는 능력이나 최소한의 의지를 갖추었느냐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을 받아도 유혹을 뿌리칠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아니할만한 노력을 스스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 잘 살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뿐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담배 끊고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렇게 약속하지만 제대로 끊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얼마나 뼈아픈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나간다고 마음 먹었으면 저녁 늦게 텔레비전 보는 것, 저녁 늦게 놀러 다니는 것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일찍 자야 합니다. 여전히 텔레비전 늦게까지 다 보고 저녁 늦게까지 할 일 다 하고 새벽기도 나간다고요? 불가능한 애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뼈아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입에 발린 애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을 꺾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연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자식 때문에 속이 몹시 상해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뱉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도 없고 총독도 없습니다. 군대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꼴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손 딱 들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징

계를 받아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남아 있으면 살리라고 한 이 백성도 결국은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갑니다. 거기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 갔던 일부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말을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시다.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몸도 이렇고 그래서 할 일이 없다 하기 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찾아보세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땅에 머무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